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이달 말까지 세금내세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서울시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인 4월 30일까지 소 제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 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만3천504개 법인(12월말 결산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5천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 천522억원을 낸 바 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 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 고 시는 덧붙였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올해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 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들을 위 해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 한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매년 5000개 이상 늘 어나고 있다.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

월 이내(4월 30일까지)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5월 14일까지)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음부즈만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위해 신규 외감대상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상을 게재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및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 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 차를 설명한다.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연내 세법개정 추진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 려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 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 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 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 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 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 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 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 다.

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 다.